

... 일반국민 편 ...

청탁금지법 금 지 사 례 10 가 지



국민권익위원회

Ⅰ 일반국민-금지편 Ⅰ

- 01 대학병원 직원을 알고 있어요. 진료일자 좀 앞당겨 달라고 해도 되나요?
- 02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어요. 눈 감아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 03 고소·고발을 당한 상황입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줘도 될까요?
- 04 공공기관 계약 입찰시기입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 05 아이 담임선생님께 면담하러 왔어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 06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동시에 해도 되나요?
- 07 식사 후 2차로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1인당 총 5만원이 나왔는데 허용되나요?
- 08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직원들과 식사하라며 선물로 5만원을 줘도 되나요?
- 09 직무 관련 공무원이 승진했습니다. 경조사비 10만원 상당의 난을 드려도 되나요?
- 10 친목회비로 직무관련 있는 비회원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되나요?



**대학병원 직원을 알고 있어요.
진료일자 좀 앞당겨 달라고
해도 되나요?**



응급환자가 아니라면,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보다
진료일자를 앞당기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므로 안됩니다.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어요.
눈 감아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 결과를
묵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부정청탁이므로 안됩니다.

고소·고발을 당한 상황입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줘도 될까요?



피고소인과 담당경찰관의 관계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물을 주시면 안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 이란?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가능

통상적인 업무회의
간담회, 자문회의 등 } 목적 인정 O

인·허가신청인, 지도·단속대상자
입찰 상대방, 고소·고발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 } 목적 인정 X



금지사례 04

공공기관 계약 입찰시기입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선물을 받는 시기, 입찰 예정자와
계약담당 공무원과의 관계를 볼 때,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선물해서는 안됩니다.



아이 담임선생님께 면담하러
왔어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학생의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단순한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안됩니다.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동시에 해도 되나요?**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의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까지이지만
동시에 제공할 때는 식사는 3만원,
총액 5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금지사례 07

**식사 후 2차로 술자리가 이어
졌습니다. 1인당 총 5만원이
나왔는데 허용되나요?**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식사 등은 합산되므로,
3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직원들과 식사하라며 선물로 5만원을 줘도 되나요?



청탁금지법상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등이며,
현금은 선물로 볼 수 없어 안됩니다.

선물: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
(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1)

직무 관련 공무원이 승진했습니다.
경조사비 10만원 상당의 난을
드려도 되나요?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승진시 10만원 상당의 난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친목회비로 직무관련 있는 비회원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되나요?



공직자가 친목모임
회비를 낸 회원이 아니라면
친목회비로
선물을 해서는 안됩니다.

청탁금지법

시민과 함께,
청렴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일반국민 편 ...

청탁금지법 허용 사례 10가지



국민권익위원회

- 01 구청 사업에 지원했어요. 진행상황 문의를 해도 될까요?
- 02 친구의 남편이 공무원입니다. 친구에게 출산 선물해도 괜찮나요?
- 03 친한 이웃이 공무원입니다. 함께 식사해도 되나요?
- 04 공무원과 업무 관련 회의가 길어져 샌드위치를 먹으며 회의해도 될까요?
- 05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천하여 TV를 줘도 되나요?
- 06 공직자인 조카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의금을 2백만원 정도 내도 되나요?
- 07 공직자와 단행본 저술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나요?
- 08 관공서 주변에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판촉물을 배포해도 되나요?
- 09 거래실적에 따른 사은품을 공직자에게 줘도 되나요?
- 10 공익재단입니다. 공무수행 중 다친 공직자를 선정하여 포상해도 되나요?



구청 사업에 지원했어요. 진행상황 문의를 해도 될까요?

업무 진행상황에 대한 단순한
확인이나 문의, 법령 상담 등은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문의해도 됩니다.



친구의 남편이 공무원입니다. 친구에게 출산 선물해도 괜찮나요?

공직자인 친구 남편과
직무 관련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친한 이웃이 공무원입니다. 함께 식사해도 되나요?

직무 관련이 없으면 3만원 이상(100만원까지),
직무관련이 있다면 사교·의례 목적 내에서
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공무원과 업무 관련 회의가 길어져 샌드위치를 먹으며 회의해도 될까요?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이 인정되는
업무협의, 간담회에서는
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 이란?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 부조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가능

통상적인 업무회의
간담회, 자문회의 등



목적 인정 O

인 · 허가신청인, 지도 · 단속대상자
입찰 상대방, 고소 · 고발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



목적 인정 X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TV를 줘도 되나요?

공무원인지와 관계없이
모든 방문객 중에서 추첨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조카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의금을 2백만원 정도 내도 되나요?

공직자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제공하는 금품은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조카, 남동생의 아내(제수씨), 아내의 언니(처형)의 남편(동서) 등



공직자와 단행본 저술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나요?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관공서 주변에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판촉물을 배포해도 되나요?

업체 로고가 새겨진 볼펜, 휴지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기 위해
제작된 적정 가격의 홍보 판촉물은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거래실적에 따른 사은품을 공직자에게 줘도 되나요?

객관적인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증정하는 사은품은
공직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공익재단입니다. **공무수행 중 다친** **공직자를 선정하여 포상**해도 되나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성금 등을 공개적으로 제공한다면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시민과 함께,
청렴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일반국민이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10가지

오해



국민권익위원회

- 01 일반인 사이에 오가는 선물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 02 국회의원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 03 “잘 봐 주세요”라는 말도 부정청탁인가요?
- 04 민원 서류에 청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처벌되나요?
- 05 공직자에 대한 선물, 5만원까지만 되나요?
- 06 공무원과 회의할 땐, 커피도 사면 안되나요?
- 07 친구가 공무원인데, 밥 한끼 살 수 없나요?
- 08 돌잔치, 환갑 등도 경조사에 해당되나요?
- 09 결혼식 손님에 대한 식사, 3만원을 넘기면 안되나요?
- 10 공직자인 이성친구에게 줄 선물, 5만원까지인가요?



오해 1.

일반인 사이에 오가는 선물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 일반인 → 일반인 (적용 ×)

일반인 → 공직자 (적용 ○)



국회의원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국회의원도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지방의원, 교수, 학교 선생님, 기자도
적용대상입니다.



오해 3.

“잘 봐 주세요”라는 말도 부정청탁인가요?

단순히 잘 봐달라는 언급만으로
부정청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령에 위반한 업무처리, 비정상적인 공공서비스
요구 등과 연계되면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잘 좀
봐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오해 4.

민원 서류에 청탁 내용이 포함 되어 있으면 처벌되나요?

법령상 절차에 따라 해결을 요청하거나,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ex)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오해 5.

공직자에 대한 선물, 5만원까지만 되나요?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100만원 내)도
드릴 수 있습니다.

ex) 유치원 졸업 후 선생님께 선물



국민권익위원회



오해 6.

공무원과 회의할 땐, 커피도 사면 안되나요?

직무와 관련된 음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면
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 통상적인 업무회의, 간담회 등



국민권익위원회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 이란?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가능

통상적인 업무회의
간담회, 자문회의 등 } **목적 인정 O**

인·허가신청인, 지도·단속대상자
입찰 상대방, 고소·고발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 } **목적 인정 X**



오해 7.

**친구가 공무원인데,
밥 한끼 살 수 없나요?**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1회 3만원 이상(100만원까지),

관련있다면 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직무 관련시에는 사교·의례 목적 내에서 가능



오해 8.

돌잔치, 환갑 등도 경조사에 해당되나요?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는
결혼, 장례에 한정되며, 대상은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입니다.

ex) 생일, 돌, 회갑, 승진, 전보, 퇴직 (경조사 x)





경조사가 허용되는 본인 · 배우자의 직계 존 · 비속 이란?



본인 · 직계비속의 결혼,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 · 비속의 장례



국민권익위원회

오해 9.

결혼식 손님에 대한 식사, 3만원을 넘기면 안되나요?

전통 규범과 일반 통념상
사회상규(社會常規)로서
3만원을 넘어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이란?

당사자가 아니라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

결혼식 손님 감사 식사 } 사회상규 O
적정 수준의 감사패, 공로패

지도단속 경찰관에게 선물 } 사회상규 X
상급 감독자에게 현금 선물



오해 10.

**공직자인 이성친구에게 줄 선물,
5만원까지인가요?**

친밀도가 높은
이성친구와 주고받는 선물은
5만원을 넘어도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

시민과 함께,
청렴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